

“출가연령 상한제 폐지해야”

원로회의 소위, 11월 30일 결의... 法 개정 건의

조계종 원로회의가 출가 연령을 50세 이하로 제한한 중법 규정을 폐기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원로회의는 11월30일 서울 위거힐호텔 중식당에서 간담회 형식의 소위원회를 열고 “출가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행자교육원 수확자격을 5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의 소위원회는 “행자교육원 수확자격을 50세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폐지할 것”을 중앙총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원로 의장 밑은 스님을 비롯해 혜승, 명선, 원

명, 월서, 월탄, 안도, 종하, 성우, 대원 스님이 참가했다.

현행 교육법에 따르면 사미(나)계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자교육원 수확 자격을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만 50세가 넘으면 행자교육원을 입소할 수 없다.

이날 소위원회는 한상균 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종단 차원에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종단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종교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자비로써 한 위원장을 보호하되, 정부와 민노총을 잘 설득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조계종 원로회의는 11월 30일 소위원회 열고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천태종 예산 165억 원 확정

제99차 정기 총의회서 결의

천태종 201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 감소한 약 165억 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총의회(의장 문태)는 지난 11월 27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서 제99차 정기 총의회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총무원 총무부 등 6개 부서와 종단 산하기관 예산

안을 심의, 원안 수정 후 의결했다. 종단 중앙총무기관과 산하단체의 2016년 일반 예산 총액은 165억 509만 7000원이다.

총의회는 26일 개회 후 총무·법제·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도 검토·심의했다. 한편 제99차 총의회에서는 상설위원회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김주일 기자

선학원, 분원장 간담회 열고 ‘勢 결집’

부산·대전·김원 등 잇달아... ‘이사회 지지 결의’

선학원이 분원장 회의를 열고 재단 임원진 신뢰를 확인했다. 또한 중진 분원장들은 법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 더 이상 조계종이 관여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20일·27일·12월 1일·2일 네 차례 걸쳐 중진 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분원장 간담회에서는 △조계종은 ‘중헌’ 제9호 ㉔항과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라 △선학원 이사회의 2013. 4. 11 정관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조계종은

2013. 4. 11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항고 및 보안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중지하라 △조계종은 선학원 분원을 확충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재단법인 선학원 내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에 서명했다.

또한, 향후 조계종이 소송을 걸어올 것에 대비해 위임장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승가청규, 수지독송 가능토록 간결해야”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청규 생활화’ 좌담회

“승가청규의 내용은 좋은데 누구나 읽고 암송하긴 어렵다. 불자들이 수지독송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리해서 읽는 이들의 가슴에 남도록 해야 한다”

2012년 백양사 승려 도박사건 이후 3년에 걸쳐 성안된 조계종 승가청규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자성교과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11월 30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에서 개최한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의 생활화와 미래 승가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교수이사리 원영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해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 원장)·목중 스님(부산 대평명사 주지)·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혜조 스님(결사본부 사무총장)·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이미령 칼럼니스트·임완숙 전 교사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제정된 승가청규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청규의 폭 넓은 실천방법으로 인한 모호성과 복

잡한 핵심까지 나열 등을 지적했다.

청규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덕문 스님은 “청규가 사문화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면 곤란하다.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포살형 테라든지 정기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살본 등을 만들어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암송위한 별도 포살본 제작

“청규 핵심 키워드만 담아야”

사회 참여·시대 정신 담아낸

미래 승가상 선언 필요해

일선 포교현장에서 활동 중인 목중 스님은 “내용은 공감하지만 누구나 다 읽고 암송할 수 없다. 읽으면서도 이 의미가 저의 미 같아 복잡하다. 핵심적인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령 칼럼니스트는 “청규가 수행·생명·평화·나눔·문화 등으로 나뉘어 구분하기가 어렵다. 청규는 간결하고 아름답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11월 30일 ‘승가청규의 생활화’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고 명쾌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까지 다 풀어 써서 한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또 의식주에 있어 세부적인 실천방법을 나열해 특정 상황에서 승려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도법 스님은 “청규 논의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실제로 스님들이 겪어보고 진실하게, 또 평화롭게 말하고 생활하는 삶이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행동양식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폭 넓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색이나 언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반 대중의 보편적 상식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 승가상에 대해서는 불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부처님 정신과 시대상 압축적인 선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병기 교수는 “부처님 당시 시대정신을 돌이키도록 하되 현대사회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처님 정신과 시대상을 압축적으로 선언하고, 청규에는 청규정신만 다루고 실천은 실천의 장에서 따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각종, 네팔 국제포교 ‘START’

11월 27일 현지 반야포교소

본존장엄가지불사 봉행

지진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피해 지역 쌀 6600kg 전달



진각종은 11월 29일 지진피해 산간 마을 ‘돌라카’를 찾아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진각종이 네팔서 반야포교소 본존장엄 가지불사를 갖고 본격적인 현지 증생교화와 국제포교 불사에 첫 발을 디뎠다.

진각종은 11월 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반야포교소서 본존장엄가지불사를 봉행하고 불사의 원력으로 심인진리 홍포와 네팔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서원했다.

이날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가지불사한 원력으로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복구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서원한다”며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반야포교소가 명실상부하게 네팔서 진각종 포교를 할 수 있는 포교 전진기지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각종 네팔 반야포교소는 현지

인 출신으로 지난 4월 24일 진각종 국제포교사로 임명된 지모 및 선연화 포교사에 의해 자립과 현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심인진리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진각종이 스리랑카에 이어 네팔 카트만두에 반야포교소를 개설해 본존가지불사를 봉행하고 기존 국제포교와 다르게 현지인을 포교사로 임명해 국제포교에 나선 가장 큰 목적은 심인불교의 세계화다.

진각종은 진각종립 위탁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수학과 교무행정을 익힌 네팔인 지모 법사를 네팔 포교 담당 포교사로 임명했다.

진각종은 “지모 포교사는 네팔 현지 문화와 전통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한

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진각종의 새 불교 운동을 전할 인연이 되어 포교사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설한 반야포교소는 3층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0여 명의 네팔인이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진각종이 11월 29일 지진피해 산간 마을 ‘돌라카’를 찾아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 기획실장 겸 사회부장 호당 정사, 반야포교소 지모 포교사 등은 돌라카 주민들에게 30kg 쌀 220 포대, 6천600kg 쌀을 나눠줬다. 또한 진각종은 지진으로 파괴된 ‘트리플라산다라’ 학교 건립도 추진한다.

김주일 기자 jimj4217@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총장 이대원 교수

3일 297차 이사회서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일민)는 12월 3일 동국대 대일산병원에서 제297차 이사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총장에 이대원 바이오학부 교수(61, 사진)를 선출했다.



이대원 신임총장은 1972년 충남 홍성고교를 나와, 1980년 동국대 농업생물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낙성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독일 유학길에 올라 1989년 독일 키엘(Kiel)대학원 생물학 석사, 1993년 동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경주 경실련 정책위원, 2004년 공무원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주발전협의회 이사, 식물생명공학회 평의원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고종도 여러분께 고평합니다. (두번째)

모든 태고종도들이 종정유시를 봉대하고 다 같이 화합동참하여 제14대 중앙총회를 구성하고, 全宗徒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총무원측에서는 종단의 혼란(混亂)과 분열(分裂)과 불화(不和)를 조장할 생각이십니까?

지난 11월 24일에 하림각에서 자칭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헤일스님이 중앙총회의원 당선증을 교부하고, 제14대 중앙총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 개원 예정인 중앙총회에서 현재 구속 중인 도산스님의 신임 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종단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지난 종정예하의 유시에 의해 해직된 도산스님의 신임 여부를 개원 중앙총회에서 처리하려는 총무원측의 구태의연한 발상에 대다수의 종도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진행한 자칭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헤일스님은 2015년 6월 1일자로 선거관리위원장직 사표를 제출하였고, 총무원측에서 사표를 수리한 후에 후임도 선출하였으나, 중앙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무원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석(空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표가 수리되어 제명(除名)된 과거의 인사가 되살아나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되었는데도, 오직 중앙총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들뜬 마음에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이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원측에서는 작금의 종단 비상사태 속에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중앙총회의원으로 제14대 중앙총회를 구성하여 또다시 자신들만의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정말로 엄청난 아욕과 집착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총무원측에서는 종정예하에 대한 불경(不敬) 그리고 폭력과 관련하여 총무원장 구속이라는 사상초유의 비상사태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내지 연장하려는 데에만 악용할 생각만 하고 있던 말입니까! 종단의 위상은 추락되고, 존엄이 훼손되고, 승가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총무원측에서는 진정 종단사태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까?

종단의 갈등과 불화를 조속히 해소하여 종도 화합과 종단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왜 끝까지 자신들만의 세력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그리고 총무원과 아합하여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세력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종도가 있다면 자중하고, 참회하여 주기 바랍니다.

老衲은 부총수교(扶松樹敎)의 일념으로 조계종과의 분쟁 당시에 종권수호를 위한 영화사 사태 발생 시 소지공양(燒指供養)을 올렸으며, 선암사 등 종단의 주요사찰 수호와 종권수호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974년 총무원 재무부장을 시작으로 중앙사정원장, 총무원장, 대본산 선암사 주지 등 종단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老衲이 태고종공제회와 관련된 피의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분(처분일자 2007년 10월 18일)되었고, 피

의사건과 관계없이 老衲이 정성어린 성금 1억원을 납부(2008년 3월 31일)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老衲을 헐뜯고 비방하려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태고종도들이 화합동참하여 종단을 정상화한 이후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제14대 중앙총회를 구성함으로써 全宗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종도화합과 종단 정상화에 애초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불교태고종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흥인곡
부위원장 김법선
부위원장 최혜운